

2019년 11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3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년 11 (Vol.53)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김영현, 강리아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619
이메일	yhkim@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공공건축 공간환경 개선 주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
재생사업 추진 탄력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세종시,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 시행
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

6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국토관측 전용위성 관리를 위한 국토위성센터 개소
산업부, 「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 개최
산업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본격 추진
국토부,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조성
국토부, '스마트 복합쉼터', '안전도로 공모사업' 릴레이 설명회 개최
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국토부,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 기본계획 착수
국토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2022년 전국 확대 보급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2곳 선정
전남도,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기공식 개최
광주시,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인공지능도시 선도' 위한 시정혁신 권고문 발표

부산시, 혁신창업 활성화와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선도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 광주시와 전국 첫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광주시,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부산시, 도시형 스마트팜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
제주시,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에너지자립 태양광보급사업 선정
충남도, '농촌형 스마트타운' 청양군에 조성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 개최
부산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서울시, 친환경 녹색교통 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화
서울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핫플레이스' 앵커시설 8개소 개관
전남도, 농어촌공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 세부 실시설계용역 착수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9

인천시, 전국 최초 「지아이에스 플랫폼 활용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해상용 LTE 라우터」 구축
전라남도,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어플리케이션 전국 최초 개발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1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19.11.01.

건축
정책

진행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약 6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경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공공건축 공간환경 개선 주도

건축주택과, 2019.11.07.

건축
정책

진행

경상남도가 지난 2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6월 위촉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도내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공공건축가 :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해 조정과 자문을 하는 데 관찰자 입장에서 조언하는 자문위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 총괄건축가 : 건축, 도시 등 공간환경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공공건축가들은 현재 40개 사업에 참여해 공간환경 개선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는 2020년 초 착공 예정인 '경남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주민자치센터복합화 사업' 23개소와 '학교 안 마을배움터 시범사업' 2개소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 공간에 공공건축가의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탄력

도시재생과, 2019.11.27.



완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8.27.)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국토정책과, 2019.11.20.

국토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는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과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세종시,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활용계획' 수립 시행

건축과, 2019.11.0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고유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건축자산 :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가치 발굴·활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자산 가치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6일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세종시 관내 건축자산 93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실시됐으며, 이를 다시 역사성·지역성·상징성·경제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치 평가가 실시됐다.

* 소상공인 거리, 문화마을, 부강중심가로, 문화어울림마당

시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소통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건축자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

주거재생과, 2019.11.19.

도시
정책

주택
정책

진행

인천광역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관측 전용위성 관리를 위한 국토위성센터 개소

도로운영과, 2019.11.02.

국토 정책

완료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국토에 대한 위성영상을 촬영하고 수집·가공한 위성정보를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의 기초자료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국토관측 전용위성 관리를 위한 국토위성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위성센터는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공간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위성센터에서 제공된 공간정보는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한반도 국토통합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공간정보로 활용하고,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위성정보에 기반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 개최

전기전자정보표준과, 2019.11.07.

국토 정책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사우디, UAE 등 아세안·중동 9개국이 참가하는 「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의 국내 개최를 정례화하고, 향후 아세안 및 중동 국가 간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본격 추진

무역진흥과, 2019.11.12.

국토
정책

문화
관광

진행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엑스포로 기록된다.

산업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항만 등 스마트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동남권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계기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조성

도로운영과, 2019.11.12.

국토
정책

문화
관광

진행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 ‘스마트 복합쉼터’, ‘안전도로 공모사업’ 릴레이 설명회 개최

도로운영과, 2019.11.12.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진행

국토교통부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물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안전도로 공모전’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국토부에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 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업무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에 앞서, 11월1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들에게 사업취지 및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이어 나간다.

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도시경제과, 2019.11.24.

도시
정책

원료

도시문제 해결,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백지상태의 부지 위에서 스마트 혁신기술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부산에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원의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한다. 제공되는 혁신 서비스들 중 부산 스마트시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물관리와 로봇이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향후 2년간의 스마트 인프라 조성 및 도시건설 과정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스마트 빌리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 기본계획 착수

철도건설과, 2019.11.20

국토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 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건설지원과, 2019.11.25.

국토
정책

완료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MOU에서 한국(국토교통부)과 인도네시아(공공사업주택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2022년 전국 확대 보급

물이용기획과, 2019.11.28.

국토
정책

환경

진행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가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된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①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②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③ 내달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 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④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발 협력체계 구축

지역계획과, 2019.11.04.

국토
정책

완료

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가 함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세종 첨단신소재, 충남 논산 전력지원체계, 강원 원주 의료기기, 충북 충주 바이오헬스, 충북 청주 바이오, 경북 영주 첨단배어링 등 7개 지역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개발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되면 현재 나주의 산업 용지 수요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개발 효과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서울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 2곳 선정

주거정재생과, 2019.11.05.

도시
정책

진행

‘강서구 공항동’ 일대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일대가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 간('20.~'24.) 총 200억 원(지역 당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생활SOC, 리모델링, 골목길재생 같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연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기공식 개최

투자유치과, 2019.11.05.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진행

천사의 섬 신안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문화관광타운이 들어선다. 그 첫 사업으로 라마다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기공식이 신안 자은도에서 열렸다.

지오그룹은 지난 4월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2천200억 원을 투입해 신안 자은면 백길해수욕장 일대 26만여㎡ 부지에 복합리조트 400실, 호텔 218실, 펜션 150동의 숙박시설과 마리나 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국제예술뮤지움, 국제대학연구소, 공연장, 오토캠핑장 등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제관광문화타운은 올해 개통한 천사대교, 인근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등과 함께 전남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양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는 중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인공지능도시 선도’ 위한 시정혁신 권고문 발표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2019.11.05.

도시
정책

진행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는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인공지능도시 선도’를 위한 7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발표하고 상설국악공연장 등을 방문,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추진위는 광주시가 선택한 새로운 먹거리기술인 인공지능(AI)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인공지능도시 선도’를 위한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

이번 혁신추진위의 권고는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인공지능도시 선도’에 목표를 두고 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생산·관리·이용을 위한 시 데이터 정책 수립, ② 데이터 중심 증거기반 정책제도 전면 도입, ③ 공공데이터 신뢰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기본 방향에 따라 2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시, 혁신창업 활성화와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일자리창업과, 2019.11.06.

도시
정책

완료

부산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① 부산지역의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원활한 정책 금융 공급, ② 지역특화 신성장산업(블록체인·스마트팩토리 등) 전문 인력 양성·장기재직 지원, ③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의 창업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한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하고,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 등을 통한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강원도,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선도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산업과, 2019.11.06.



강원도가 11월 5일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선도 추진을 위해 5개 관계 기관(지상작전사령부, 강원지방경찰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18개 시군을 포함한 강원도와 관계 기관 간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난·위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황금시간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단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에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강원도는 국토부의 5대 안전서비스 외에 법무부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 안심귀가 지원, 수배 및 체납 차량 조회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강원도 전역을 첨단 안전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광주시와 전국 첫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에너지신산업과, 2019.11.06.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공동 신청한 광주·전남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이 6일 열린 제18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조성계획은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거점 구축’을 목표로, 중점산업과 단지 범위, 산학연 집적,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단지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중점산업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향상, 풍력이다.

광주시,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재난예방과, 2019.11.06.

건축
정책

안전

진행

광주광역시와 재난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광주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노후시설과 개방된 밀집점포가 많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재난위험시설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혁신과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확립, 시설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스마트 분전반 시범보급 등 시설개선, 안전교육과 화재보험가입 확대, 전통시장 화재알림 조기경보 체계 구축, 소방특별점검 및 소방교육 확대 등 6개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전통시장 전기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현장에서 체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예방 스마트 분전반 구축 시연을 선보였다.

부산시, 도시형 스마트팜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11.17.

도시
정책

진행

부산시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냉동컨테이너를 활용, 도시형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의지를 기반으로, 화신학원의 부지 무상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스마트팜 플랫폼 기부 등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부산경상대 관련학과 개설, 제2단계 스마트팜 구축, 도시재생 연계 스마트팜 플랫폼 확산과 같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시,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융합과, 2019.11.18.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기업 Pix4D S.A. 및 (주)드론오렌지와 「제주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드론 기반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인 Pix4D와 제주도 지역기업 (주)드론오렌지가 함께 제주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에너지자립 태양광보급사업 선정

주거재생과, 2019.11.19.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서울시는 태양광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 하였으며,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노후 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에너지재생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농촌형 스마트타운' 청양군에 조성

자치행정과, 2019.11.20.

도시
정책

진행

충남도가 청양군에 농촌형 스마트타운과 일반산업단지 등 '청양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주거·관광 복합시설에 첨단 스마트기능을 도입한 산단을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형 스마트타운은 청양군 남양면 일대 약 100만㎡ 부지에 농특산물 임가공산업, 농촌형 연료전지산업,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운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우건설과 LG CNC, 한국서부발전 등이다.

대우건설이 타운 전체시공을 맡으면, LG CNC와 한국서부발전이 스마트타운 관련 농자재와 시스템,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공급을 각각 담당하는 시나리오다.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 개최

투자진흥과, 2019.11.21.

국토
정책

문화
관광

진행

경기도, 기획재정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그룹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된 비전에는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테마파크의 개념을 넘어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국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도는 오는 2021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 오는 2026년 1단계 오픈에 이어 오는 2031년 그랜드 오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개최

스마트시티추진과, 2019.11.24.



부산시는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 인근에서 ‘스마트 도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사업으로 선정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에코델타시티 세물머리 지역 일원 2.8km² 부지에 헬스케어, 스마트워터, 로봇 등 10대 전략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친환경 녹색교통 위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화

교통정책과, 2019.11.25.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핫플레이스' 앵커시설 8개소 개관

공공재생과, 2019.11.27.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완료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서계·중림·회현동에 새로운 도시재생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앵커시설 8개소를 28일 일제히 개관한다고 밝혔다.

앵커시설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문화생활에 소외된 지역에 문화거점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다.

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붐업을 위해 지난 '16년~'18년 주요 입지를 선정하고, 일반주택과 건물을 매입해 공간을 확보했다. 지역별 주민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문가관계자 워크숍을 수차례 열어 각 앵커시설의 활용용도와 운영방향을 정했다. 건축 단계엔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주민 목소리를 담아냈고,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또는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총 10개의 시설을 매입했다. 이번 8개 시설 개관을 시작으로 내년 중으로 나머지 2개소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도, 농어촌공사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시설 세부 실시설계용역 착수

식량원예과, 2019.11.30.

국토
정책

진행

전라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과 청년보육임대형스마트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세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부 실시설계용역은 기반조성 분야와 핵심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기반조성 분야는 혁신밸리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빗물저수조 등 시설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핵심시설 분야는 청년보육센터, 실습농장,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실증단지, 혁신밸리지원센터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세부설계가 끝나면 인허가 협의와 시행계획 수립·공고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전망이다.

인천시, 전국 최초 「지아이에스(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2019.11.07.

건축
정책

안전

진행

인천광역시가 현재 분야별로 운영중인 시설관련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현재 시에 구축되어 있는 지아이에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교량·터널·지하도상가, 위험시설, 급경사지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 종합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안전점검 중복 방지, 안전점검 체계적 통합 이력관리,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기능 수행, 시스템별 연계를 통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 대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건축물 철거현장 내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학기술과, 2019.11.08.

건축
정책

안전

진행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건물 상부의 하중분산을 위해 건축물 철거현장에 설치하는 ‘잭서포트(Jack Support)’의 이상 여부를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인 ‘블루투스 비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압력센서가 내장된 방진고무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이 감지되면 블루투스 비콘이 작동해 휴대폰 앱으로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잭서포트의 위치와 개수는 물론 이상 하중 발생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어플리케이션 전국 최초 개발

자치행정과, 2019.11.11.

도시
정책

안전

완료

전라남도가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재해, 주민 생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리는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정식 보급기로 했다.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는 도민에게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이다.

그동안 지진, 해일,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문자전송시스템(CBS)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정소식이나 긴급상황을 전파하고 있지만 야외 활동 중인 도민에게는 직접적 전달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음성알리미 시스템을 보급하면 재난재해나 생활정보를 전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